

『어우야담(於于野談)』에 반영된 사행(使行)
관련 이야기 연구*

한 태 문**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일본 사행 관련 이야기 |
| 2. 사행 관련 이야기의 형성배경 | 5. 맺음말 |
| 3. 중국 사행 관련 이야기 | |

국문초록

이 글은 최초의 야담집인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사행(使行) 관련 이야기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핀 것이다.

『어우야담』 속 사행 관련 이야기는 유몽인의 직접적인 사행 참여와 간접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직접적인 참여는 3차례의 중국 사행과 2차례의 중국 사신을 접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간접적인 체험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사행을 떠났던 사행원들이 남긴 ‘사행록’이나 ‘문집’에 대한 독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중국 사행 관련 이야기는 크게 ‘점복과 신앙’, ‘致富와 무역’, ‘학문과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 '서화와 생활문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점복과 신앙' 관련 이야기는 관상 및 죽음과 관련한 점복이 많았고 사행을 통한 점복의 교류 및 불교에 대한 선비의 인식과 천주교의 교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치부와 무역' 관련 이야기는 사행원의 치부와 무역이 물욕의 여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권력욕과 결부되면 그 결과가 비극적임을 보여준다. '학문과 문학' 관련 이야기는 부적절한 학습교재의 선택이 초래한 학력 저하, 조선 사행원의 시문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와 중국 사신들의 시문에 대한 유몽인의 평가, 조선 사행원의 독서벽과 충명강기 등을 다루었다. '서화와 생활문화' 관련 이야기는 조맹부의 서체, 황기로의 초서, 중국 사신 김식의 그림 감식안 등과 중국의 정원, 절부가 없는 湖廣지방의 풍속 등 생활문화를 다루었다.

일본 사행 관련 이야기는 중국 사행에 비해 수도 적고 내용도 다양하지 않지만, 계해통신사(1443) 신숙주, 경인통신사(1590) 김성일, 탐적사(1604) 유정과 관련된 내용과 일본국왕사의 이름에 대한 언어유희, 왕의 칭호가 없는 유구국, 살인을 숭상하는 일본 풍속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이처럼 『어우야담』은 첫 야담집임에도 불구하고 사행 관련 이야기를 많이 수록되고 있는데, 이후 각종 야담집에서도 자료가 발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야담 연구에서 '사행담(使行譚)'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출현을 기대하게 한다.

주제어 : 어우야담, 유몽인, 사행, 사행록, 사행담

1. 머리말

‘야담’은 조선후기 사대부들이 민간에 전해 오던 것이나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견문한 사실을 한문으로 기록한 비교적 짧고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따라서 야담에는 기록자의 의식이나 가치관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과 생활상 및 시대정신까지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야담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인 야담집인 『어우야담』, 『청구야담』, 『천예록』, 『학산한언』, 『계서야담』, 『동야회집』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이들 야담집을 통해 ‘群盜譚’·‘訟事譚’·‘毀節譚’·‘推奴譚’·‘再嫁譚’ 등 다양한 이야기 유형이 산출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¹⁾ 하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 행사인 사신행차(이하 ‘使行’)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그 첫 시도로 조선조를 대표하는 야담집인 『어우야담』에 반영된 사행이야기의 면모를 살피고자 한다.

일찍부터 수필 중의 백미로 평가받은 유몽인(1559~1623)의 『어우야담』은 사실과 다른 기술이 많아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遺事>나 <墓誌銘>처럼 한 인물의 생애를 기술하는 데 자주 인용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았다.²⁾ 『어우야담』에 수록된 사행 관련 이야기는 약 65편에 속한

1) 이현홍 외, 『한국고전문학 강의』, 박이정, 2014, 203-206쪽.

2) 李瀾은 『星湖僊說』 권4, 『萬物門』, <角黍>에서 유몽인이 『어우야담』의 <수단과角黍>(272화, 이하 ‘<제목>(000화)’로 약칭)에서 대추 찰밥을 ‘角黍’라고 한 사실을 두고 “이는 북소리를 듣고 피리를 만지고서 해라고 의심한 것과 같은 것”이라 했고, 張維도 『谿谷漫筆』 권1, 『漫筆』, <柳夢寅於于野談多失實>에서 그 글이 속되고 기록 자체도 사실과 다른 점이 눈에 띈다며 구체적으로 ①박원종이 36세에 領相이 되었다는 기록, ②홍유손이 9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 ③김수온이 대제학이 되었다는 기록 등을 오류라 비판했다. 게다가 이덕무는 『靑莊館全書』 권15, 『雅亭遺稿』7, <族姪復初光錫>에서 유몽인의 병통을 “와전과 누락이 아주 많고 고아하고 기이한 기사라도 한 번 유몽인의 붓을 거쳐가면 가치가 손상되고 빛을 잃는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익은 鄭協의 묘갈명을 쓰면서 『어우야담』(373화)을 인용했고(『성호전집』 권60, 『墓碣銘』, <吏曹參判鄭公墓碣銘并序>), 이궁익도 『연려실기술』에서 ‘崔恒’(권5, 『世祖朝故事本末』, <崔恒>), 柳子光(권7, 『中宗朝故事本末』, <柳子光竄死>), 李山海·南師古(권18, 『宣祖朝故事本末』, <東西南北論分>), 盧守愼(좌동, <盧守愼>) 등의 일화에 각각 『어우야담』(116·398·376·246화)을 인용하고 있다.

다.³⁾ 전체 558편에 비하면 약 12%에 지나지 않지만, 오직 ‘사행’이라는 특수한 모티프 하나만으로 이 정도의 이야기가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은 사행에 대한 작가 유몽인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실제로 『어우야담』의 처음을 장식하는 <목숨을 바쳐 어머니를 구한 나의 형 유몽웅>(001화)도 유몽인이 1591년 명나라로 사행을 갔다 온 사이 벌어진 집안일을 다루고 있다. 바로 셋째 형인 유몽웅이 왜구를 피해 양주의 선산에 피난해 있던 중 왜구가 칠십 노모에게 칼을 빼들자 온몸으로 감싸 어미는 살리고 자신이 죽은 이야기이다.

게다가 후손들에 의해 총 12권 6책으로 엮어진 『於于集』(1832)에도 유몽인이 중국 사행에 참여하여 남긴 시문을 모은 『星槎錄』·『朝天錄』을 비롯하여 ‘問安使’·‘延慰使’로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고 접대를 담당하면서 그들과 창화한 시들을 모은 『西僊錄』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어우집』 권3·4와 『어우집 후집』 권3에 수록된 『序』의 대부분은 <送朴說之東說赴京序>·<送回答副使朴典翰梓入日本序> 등 중국과 일본으로 사행을 떠나는 이들에 대한 餞別詩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유몽인의 삶과 문학에서 사행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어우야담』은 ‘규장각본’·‘국립중앙도서관본’·‘만중재본’·‘동야패설본’·‘이수봉본’·‘연세대본’ 등 이본만도 약 30종이 넘는데, 이는 『어우야담』의 광범위한 독자 수용과 영향력을 가늠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익철·이형대·조윤희·노영미가 옮긴 『어우야담』(돌베개, 2009)을 기본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그것은 이 텍스트가 각종 이본을 면밀히 비교·검토한 뒤 널리 정본처럼 활용되고 있는 ‘만중재본’의 521편에다, ‘만중재본’에 수록되지 않은 38편의 이야기도 새롭게 발굴하여 『補遺編』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조선어문학회, 1931, 142쪽. 본고에서 ‘사행 관련 이야기’의 범위는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사행과 관련된 것은 물론, 사행이 부차적으로 언급된 이야기도 포함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사행 관련 이야기가 많이 수록될 수 있었던 배경과 그의 사행 관련 경험 및 견문이 야담집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이를 통해 야담연구에서 ‘사행담(使行譚)’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출현 가능성도 조심스레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행 관련 이야기의 형성배경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있어 ‘여행’은 修學의 방법이자 생활이며 또한 예술의 주제였다.⁴⁾ 오늘날 수없이 많이 전하는 遊記나 紀行詩들은 바로 그들이 몸소 여행을 떠나 체험하고 느낀 바를 기록한 결과물인 셈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으로의 여행은 일찍이 김창협이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보지 않고는 / 남아의 의기 높아지지 않으리”라고 읊었듯이⁵⁾, 사서삼경과 제자백가의 사상을 줄줄 외던 조선 선비의 원대한 꿈이었다. 하지만 사신행차와 같은 공식적인 경우가 아니면 중국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사대부들은 사행 참여를 통해 그 꿈을 이루고자 했다. “영원히 중국 사람이 되어 명나라에 살고 싶고”, “내세를 점칠 수 있다면 중국에 태어나고 싶다.”⁶⁾ 유몽인 역시, 사행 참여를 통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유몽인은 “내가 연경에 간 것이 세 번”이라며 자주 자랑한 것처럼⁷⁾

4) 소재영·김태준 편, 『여행과 체험의 문학』,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11쪽.

5)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35, 『淸脾錄』 4, <農巖三淵慕中國>, “農巖先生詩 未見秦皇萬里城 男兒義氣負崢嶸”.

6) 유몽인, 『어우집』 권2, 시, 『朝天錄』, <獨樂寺施詩六首>, “長作華人住大明”: 『어우집』 권2, 시, 『南歸錄』, <次漢陰韻題僧戒靜詩卷>, “他生如卜願生華”.

7) 유몽인, 『어우집 후집』, 권3, 『序』, <送金書狀鑑赴京歌序>, “余赴燕凡三”: 『어우집』 권3, 『서』, <送冬至使李昌庭序>, “余嘗三忝觀國”: 『어우집』 권4, 『서』, <送高書狀用厚序>, “余亦三忝觀國賓”.

총 3차례나 중국 사행에 참여했다. 33세(1591)에 質正官으로 참여한 것이 첫 번째 사행이다. 질정관은 사신이 별도로 뽑아 수행하게 한 문관으로, ‘朝天官’이라 부르던 것을 중종 30년(1535)의 聖節使行 때 처음으로 고쳐 부른 직함이다. 질정관은 명나라와 교섭하는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서장관과 동행하여 吏語와 方言 중 해독할 수 없는 것을 중국 관리에게 물어 주석을 받아 오는 임무를 맡았다.⁸⁾

유몽인은 일기로 된 사행록 대신 사행에서 지은 시를 모은 『星槎錄』을 남겼다. 『어우집』의 『성사록』에는 1592년 삼월 삼진날 숙소인 북경의 玉河館에서 1591년 10월 24일 서울을 떠난 奏請使 韓應寅, 서장관 辛慶晉, 질정관 吳億齡 등을 만나 연회를 열며 창화한 <玉河館三月三日次前韻同尹友新韓應寅辛慶晉吳億齡金信元集燕>을 비롯한 칠언율시 3題 6수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어우집 후집』의 『성사록』에는 산해관에 이르러 감회를 읊은 40운의 <山海關用鹽字四十韻>이 수록되어 있다.⁹⁾ 유몽인의 첫 사행은 귀국길에 올라 압록강을 넘기 전 일본의 침략소식을 접하고 5월에야 황해도 봉산에서 복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두 번째 사행은 38세(1596)에 謝恩使兼進慰使 盧稷의 서장관으로 참여하였다. 이때도 시문을 창작했겠지만 『어우집』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8월 15일 杏山의 민가에 머물 때 정사인 노직과 함께 거리를 거닐며 경치를 굽어볼 만한 煙臺를 발견했다는 기록, 연경에서 閩 땅의 중국 武官이 선물한 난초에 관한 기록 등을 남기고 있어 당시 사행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¹⁰⁾

8) 이궁익, 『燃藜室記述 別集』 권5, 『事大典故』, <使臣>, “三十年乙未 舊例質正官於差關中 寫於押物之頭 而無質正官之號 自是年聖節使之行 時帶質正官三字銜而寫於書狀官之下焉…吏語方言之未解者 憑序班董得註釋而來”.

9) 유몽인, 『어우집』 권1, 시, 『星槎錄』/ 『어우집 후집』 권1, 시, 『星槎錄』.

10) 유몽인, 『어우집 후집』, 권3, 『序』, <杏山記夢詩序>, “至二十四年 余以謝恩兼進慰使書狀官如北京 到杏山舍城內民莊 是日八月十五夜 薄雲微月可賞”; 『어우집』 권3, 序, <送聖節使書狀金大德序>, “余去年聖節朝于燕 有韓序班 閩人也 贈余蘭一盆”.

세 번째 사행은 51세(1609)에 萬曆帝의 생일을 축하하는 聖節使兼謝恩使行에 종사관 金存敬 및 李好信 등과 함께 상사로 참여하였는데, 이때 지은 시를 모아 『朝天錄』을 남겼다. 『어우집』의 『조천록』에는 압록강을 건너며 이별의 소회를 읊은 <渡鴨綠> 2수를 비롯한 39題 57首의 시가, 『어우집 후집』의 『조천록』에는 백이와 숙제를 모신 사당인 고죽묘에 이르러 감회를 읊은 <孤竹廟>를 비롯한 108제 142수가 수록되어 있다.

유몽인은 성절사겸사은사 上使로, 조카 柳湊은 千秋使 서장관으로 열흘 간격으로 사행을 떠났다. 게다가 聖節의 表文과 謝恩의 箋文은 각각 자신과 둘째형 유몽표의 사위 柳慶宗이 지었다. 유몽인은 이 사실을 두고 “나라에 인재가 없겠나만 만약에 우리 집안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나랏일을 밝게 드러낼 수 있었겠는가”¹¹⁾라며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낸다. 유몽인은 이 때 명나라 조정이 만국의 사신들을 연회에 초청하자 선조의 국상이 3년을 지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연회에 참석하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는 <免宴禮部再度呈文>과 염초와 弓角의 무역을 요청하는 <請鹽硝弓角禮部呈文>을 예부에 올리기도 했다.

유몽인의 사행 체험은 3차례의 직접적인 사행참여 외에 중국에서 온 사신을 접반하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졌다. 조선 조정은 중국 사신과의 시문창화에 대비해 ‘명망 있고 문장에 능한 자’ 가운데, 황제의 조칙을 지닌 勅使에게는 정2품 이상의 관원인 正卿을 ‘遠接使’로, 중국에서 임무를 띠고 파견된 관원인 差官에게는 중2품 관원인 亞卿을 ‘接伴使’로 임명하여 의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중국 사신을 접대했다.¹²⁾

유몽인의 첫 번째 접반사행 참여는 35세(1593)에 間安使가 되어 명나

11) 유몽인, 『어우집』 권3, 『序』, <柳書狀別章帖序>, “今又聖節表文 乃吾手自製 而謝恩箋文 乃吾月城兄之甥柳司諫慶宗所製…國豈無人矣 向非吾一家人 其何以責國事乎”.

12) 유몽인, 『어우집 후집』 권3, 『序』, <皇華集序>, “國王選陪臣負重望能文章者 同文士若而人 僉之于龍灣如儀”; 김지남, 『통문관지』, 권4, 『事天下』, <僉使差遣>, “勅使則以正卿差遠接使 差官則以亞卿差接伴使”.

라 제독 이여송을 응접하고 이어 經略 宋應昌을 접반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는 조선에 파병 온 明軍의 병기 및 군량 수송의 원활함을 돕는 한편, 李廷龜·黃愼 등과 함께 송응창과 『대학』 및 양명학에 대해 토론하였다. 두 번째 접반사행은 48세(1606)에 遼東都司 延慰使가 되어 명나라 神宗의 원손 탄생을 알리기 위해 파견된 명나라 사신 정사 朱之蕃과 부사 梁有年을 접대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때 제작된 시가 『西僊錄』이란 이름으로 전하는데, 『어우집』에는 명나라 사신을 맞기 위해 기다리면서 원접사 柳根의 시에 차운한 <次遠接使西壩韻>을 비롯한 19제 20수의 시가, 『어우집 후집』에는 주지번과 양유년의 시에 각각 차운한 <次朱天使宴集南別宮韻>·<次梁天使遊蠡頭韻>을 비롯한 19제 20수 및 『拾遺錄』에 <次天使漢江韻>을 비롯한 2제 2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어우집』의 『玉堂錄』에는 1602년 3월 황태자 책봉 조서를 반포하기 위해 조선에 온 顧天垓·崔廷健의 시에 차운한 <次天使韻二首>도 수록되어 있다.

한편, 유몽인은 1604년 探賊使로 도일했던 사명대사, 1607년과 1617년 회담겸쇄환사에 부사와 종사관으로 참여했던 朴梓·李景稷에게 부친 전별시 등에서 보듯¹³⁾ 일본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비록 직접 일본에 통신사로 참여하거나 일본의 國王使를 맞이하진 않았지만, 할아버지 柳忠寬의 장인인 申公濟가 신숙주의 동생인 申末舟의 손자였기에 자연스레 신숙주가 쓴 『해동제국기』를 비롯한 통신사 사행원의 사행록 및 문집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몽인은 직접 사행에 참여하거나 중국의 사신을 접반하면서, 또는 독서를 통해 사행체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양한 사행체험을 오롯이 『어우야담』 속에 녹여낼 수 있었던 것이다.

13) 유몽인, 『어우집』 권1, 시, 『玉堂錄』, <送松雲大師惟政渡海入對馬島>·<次詩軸韻贈僧敬誠>; 권6, 『雜著』, <送回答使從事官李景稷入日本國辭>; 『어우집 후집』 권3, 『序』, <送回答副使朴典翰入日本序>.

3. 중국 사행 관련 이야기

『어우야담』에 전하는 중국 사행 관련 이야기는 크게 점복과 신앙, 致富와 무역, 학문과 문학, 서화와 생활문화로 나눌 수 있다.

3.1. 점복과 신앙

‘점복’에 대한 유몽인의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점>(322화)에서 “옛날에 점을 잘 치는 사람은 비단 사람의 장수와 요절, 출세와 몰락, 길흉, 후회하고 인색한 것에 징험이 있음이 귀신같은 뿐 아니라, 초목의 씨를 뿌리거나 그릇을 만드는 데 이르기까지 그 처음과 끝을 추구하여 오래도록 맞히는 것이 있었다.”는 진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결과 『어우야담』의 사행 관련 이야기에도 점복을 반영한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크게 사행을 통해 유몽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와 타인이나 다른 문헌을 통해 견문한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유몽인이 사행을 통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를 살펴보자.

(가) 전에 黃天賚가 大紫微數로 형의 운명을 논하여 말하기를 “목숨이 크게 짧아질 것”이라 하였고, 遼東의 古塘 戴鶴經이 나를 위해 형의 운수를 점쳐 주면서 “임진년 4월에 거처를 옮기고 환란을 만날 것”이라 하였으니, 천명이다. -<목숨을 바쳐 어머니를 구한 나의 형 유몽웅>(001화)

(나) 주인에게 며느리가 있어 나이가 19세였는데 안색과 머리, 손발이 모두 백설처럼 하얀 것이 이현배의 아들과 똑같았다. (중략) 10년이 지나 누르하치의 변이 있었다. 대개 백색은 서방의 금색으로 전란의 징후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 - <백색인간과 전란의 징후>(464화)

(가)는 1591년 절정관으로 유몽인이 첫 사행을 떠나고 난 뒤 왜구로부

터 4번이나 창에 찢리면서도 어미를 구하려다 죽은 셋째 형 유몽웅의 운명이 조선과 중국의 두 점술가에 의해 이미 예견된 것임을 보여준다. 도교의 星命書인 『紫微斗數』를 이용해 유몽웅의 운명을 점친 黃天賚는 1566년생으로 자가 良弼이며 53세(1618)에 식년시 생원 2등 3위로 합격하였다. 황천되는 1623년 殿講試를 치러 『春秋』에서 ‘粗’의 성적을 받은 것¹⁴⁾ 외에 다른 정보는 없지만, 유몽인의 벗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훨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戴鶴經은 중국 사행에서 만난 이로, 『조천록』에 수록된 <通州戴店次壁上韻>에 등장하는 通州 戴店의 주인인 듯하다. 유몽인은 평소 손위 형인 유몽웅을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에¹⁵⁾ 벗은 물론 사행길에서 만난 중국인에게조차 형의 운수를 물었던 것이다. 유몽웅의 운수는 <조상과 자손의 혈기의 비슷함>(050화)에서도 드러난다. 곧 집안에 모시고 있던 선조 柳濯의 영정과 유몽웅의 얼굴이 닮아 유몽웅의 처가 직간하다 단명한 유탁의 전철을 밟을까 근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유몽인이 1609년 사행길에 遼左지방의 牛家庄에 머물면서 주인 집 며느리의 모습을 본 후 진주목사 이현배의 아들을 떠올리며 明의 앞날을 예견한 것이다. 이현배의 첩은 氷雪같은 뱀어를 구워먹고 낳은 아들이 온 몸이 흰색인 데다 대낮보다 밤에 익숙하여 사람들이 전란의 징후가 됨을 염려하였는데, 과연 이듬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유몽인이 만난 우가장의 19세 주인집 며느리도 온 몸이 흰색이었다. 십년 후에 누르하치의 변이 생긴 것으로 보아 서방의 금색인 백색이 전란의 징후가 된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몽인이 다른 사람이나 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점복 관련 사행이야기인데, 관상 및 죽음과 관련한 점복으로 나누어진다.

14) 『승정원일기』, 인조 1년(1623) 7월 15일, “儒生殿講時…生員黃天賚春秋粗”.

15) 『어우야담』, <목숨을 바쳐 어머니를 구한 나의 형 유몽웅>(001화), “余嘗期以臨節不奪 可托六尺之孤”.

(ㄷ) 근래 상국 柳璵이 연경에 갔을 때 관상을 잘 보는 이를 만나 일부러 위엄 있는 용모를 지닌 하인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그에게 보여주었다. 관상쟁이는 그를 평생 숯이나 팔 사람으로 속이지 말라 했고, 멀리서 상국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이 분이야말로 진짜 재상이십니다.”라고 하였다. - <떡보와 사신>(051화)

(ㄷ) 박순이 병이 들어 계집종을 베고 누웠다가 갑자기 두려워하며 놀라 “예전에 내가 중국 조정에서 갔을 때 점쟁이에게 물었더니 그 점괘에 이르길, ‘봉황을 베고 죽으리라.’고 했다. 지금 베고 있는 계집종의 이름이 ‘鳳’이니 내가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겠구나.”라고 말했다. - <죽음을 예견한 박순>(327화)

(ㄷ)는 중국 관상쟁이의 智鑑이 뛰어남을 강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전반부에는 話題에서 보듯 원래는 예의의 나라에 반드시 異人 이 있을 것이라 여긴 중국 사신이 조선의 한 장부를 만나 말이 통하지 않자 손을 들어 대화한 이야기가 놓여 있다. 곧 사신이 손가락을 들어 둥글게 만들어 보이자 장부는 손가락을 네모지게 만들었고, 사신이 세 손가락을 구부리자 장부는 다섯 손가락을 구부렸으며, 사신이 옷을 들어 보이자 장부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켜 웅대한 것이다. 사신은 이를 ‘天圓-地方, 三綱-五倫, 德治-口治’로 해석했지만, 정작 장부는 ‘둥근 절편-인절미, 하루 세 끼 식사-다섯 끼 식사, 옷 입는 일이 근심-먹는 것이 근심’ 등으로 해석하였다. 결국은 전혀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에서 달리 이해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유몽인은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가 예의의 나라라는 명성에 지레 겁을 먹어 벌어진 웃음거리로, “관상쟁이의 智鑑이 사신의 智鑑과는 다르다.”는 평결을 남긴다.¹⁶⁾

16) 유몽인, 『어우야담』, <떡보와 사신>(051화), “相者之鑑人 其諸異乎詔使之識人乎哉”. 『어우야담』은 전체 558편의 이야기 가운데 무려 213편의 이야기에 유몽인의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評結’을 덧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선, 『『어우야담』 평결에 나타난 유몽인의 현실인식 연구』, 『高鳳論集』 42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2008, 12-13쪽을 참조.

사행을 통해 점복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선도에 통달한 정림과 정작>(089화)은 ‘高士’·‘物表神人’·‘異人’·‘眞人’·‘神仙’·‘清士’·‘至人’·‘逸民’ 등 다양한 칭호를 지닌 데서 알 수 있듯¹⁷⁾ 태어날 때부터 靈異했고 자라서 三教에 두루 통달했다고 평가받는¹⁸⁾ 鄭謙에 관한 이야기이다. 정림이 1538년 管押使로 임명된 아비 鄭順朋을 따라 중국으로 가서 異人인 유구국 사신과 사흘 밤낮을 『주역』에 대해 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⁹⁾ <망기법에 능통한 박상의>(096화)에서는 朝天使로 중국에 간 尹根壽가 연경에서 氣를 살펴 점치는 법을 배웠고, 李再榮이 연경의 동악묘에서 사방 벽이 모두 막힌 토굴에서 고행하는 도사를 만나 알게 된 수행법을 술사인 朴尙義가 배워 기를 살필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²⁰⁾

(래)는 점복을 통해 죽음을 예견한 이야기로 『어우야담』에 비교적 많이 등장하는 유형의 이야기이다. <조위의 죽음과 점술>(326화)은 1498년 聖節使 정사로 중국에 간 曹偉가 요동의 점술사 鄒源潔로부터 “천 겹 물결 속에서 몸을 뒤적이며 나오고 / 밤에 바위 앞에서 잠드니 달빛 새롭구나(千層浪裏翻身出 夜宿岩前月色新)”라는 詩識을 받았지만 뜻을 몰랐는데, <弔義帝文>으로 부관참시를 당할 때 조위의 시신 아래 큰 바위가

17) 손찬식, 『북창 정림 전승 연구』, 『국어교육』 63권, 한국어교육학회, 1988, 41쪽.

18) 장유, 『谿谷先生集』 권6, 『序』, <北窓古玉兩先生詩集序>, “北窓生而靈異 博通三教”.

19) 이 일화는 원래 鄭謙의 『北窓集』에 수록된 것으로, 이궁익, 『연려실기술』 권11, 『明宗朝古事本末』, <明宗朝遺逸·鄭謙>에도 수록되어 있다. “嘗入中國時 有流球國使臣 亦異人也…”.

20) 윤근수는 중국어에 능한 외교전문가로 奏請使 副使(1573), 聖節使 正使(1589), 奏請使 正使(1594)로 명나라를 다녀왔고, 이재영은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1623) 3월 18일자 기록에 “文才가 있고 변려문에 더욱 능한(有文才 尤善駢儷之文)” 인물로 평가될 정도로 文名이 높아 허균의 추천으로 1612년 奏請使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일기』 권21, 광해 4년(1612) 12월 16일, “奏請使許筠啓曰…且臣等到京之後 必有呈文之事 吏文學官李再榮及寫字官一人依前例”. 박상의는 象數學者로 궁터의 맥을 살피고 선조의 장지 선정에 관여할 정도로 풍수와 역학에 뛰어났던 인물이다.

있었다는 이야기다. <권세가 김안로의 최후>(430화)는 권세를 심하게 부리던 김안로가 중국 사행에서 유명한 점쟁이로부터 “갈원에 이른 날 쥐를 보고 놀라리라”라는 점괘를 얻었는데, 귀양 가다 葛院驛에 이르러 사약을 받은 그날이 바로 子日이었다는 내용이다.²¹⁾ 이밖에 <임진왜란과 재앙의 징후>(459화)는 1591년 韓孝純이 사신으로 중국에 갔을 때 무기고 속 병기의 광채가 열 배나 환하여 중국인들이 전쟁을 근심하였는데, 이듬해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중국이 군사를 움직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불교·천주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불상을 훼손한 하경청의 죽음>(526화)은 호조 算員의 아들인 河景淸이 보현사의 水陸無遮會 행사 때 칼로 불상의 얼굴을 훼손하였는데, 뒤에 순안현에서 벼슬하다 백성에게 내쫓겨 불에 타죽자 모두 인과응보라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유몽인은 중국 사행 때 과거 응시 유생들이 모두 불상 앞에 절을 한 사실을 떠올리며 “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공경하는 바가 있어야 할” 선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비판한다. <역관 표현의 염불담>(401화)은 역관 表憲이 중국 사행길에 밤새도록 염불을 외는 중국인 高三의 집에 머물렀다. 고삼이 염불이 전생과 후생에 어떤 이로움이 있겠느냐고 묻자 표현이 오직 염불만 외다 관찰사에게 곤장만 80대 맞은 조선 거사의 예를 들려주어 이후 고삼이 염불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구라파의 천주교와 이마두의 『천주실의』>(112화)는 작가가 허균이 중국에 천주교를 전파한 利瑪竇가 그린 <天下輿地圖>와 偈 12장을 얻어온 것을 읽은 후,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하고 혼인하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니 어찌 그릇된 도를 끼고 세상을 미혹되게 하는 죄를 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김안로는 57세(1537)에 중종의 제2계비인 文定王后를 폐위시키려는 계획이 발각되어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10월 27일 경기 振威縣 葛院에서 賜死되었다.

3.2. 致富와 무역

『어우야담』에는 사행을 통한 치부담도 많이 보인다.

나는 일찍이 중국에 세 번 다녀와서 역관들의 용태를 잘 안다. 그들이 만 리 바깥에서 이역땅을 밟으며 분주히 오가는 것은 나랏일을 위함도 아니고 공명을 위함도 아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는 단지 중국인의 재화와 통하여 교역하는 이익을 크게 하고자 하는 것일 뿐으로, 송곳날 같은 조그마한 이익도 천하의 보물처럼 소중히 여긴다. - <역관 꺾지원과 홍순언의 의로운 행동>(371화)

유몽인이 자신이 체험한 세 차례의 중국사행을 바탕으로 역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는 『어우집』에서도 확인된다. 유몽인은 1606년 동지사행을 떠나는 李尙信에게 역관들이 농간을 부리는 데다 염치까지 없어 “천하의 사람 중에 이익을 독차지하고 함부로 요구하는 것을 병통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없다.”며 사행 내내 그들을 경계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다.²²⁾ 그래서인지 『어우야담』에는 역관과 관련한 치부담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역관 이화종의 치부내력>(363화)은 역관 李華宗이 중국 사행 때 盤山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 근원을 찾아가다 팔뚝만한 큰 뼈를 발견한 뒤 시장에서 늙은 상인에게 10만 금에 팔았다. 그런데 그 뼈가 火龍의 뼈였고 그 속에 50만 금의 가치를 지닌 구슬이 들어있어 이화종은 갑부가 되었고 자손들도 巨家大族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허균의 『惺所覆瓿藁』에도 수록되어 있다. 주인공이 ‘李和宗’이고 뼈는 高郵 물가에서 발견한 ‘뿔 없는 용의 등뼈’로 6개의 큰 구슬을 품고 있었으며, 그 구슬을 천 냥에 해당하는 비단과 바꾼 것이 다르다. 특히 『어우야담』과는 달리 이화종이 하늘이 내린 것이기에 독차지 할 수 없다며 그 비단을 상

22) 유몽인, 『어우집 후집』, 권3, 「序」, <送李而立尙信赴賀冬至于燕京序>, “中間簸弄操舍唯已欲之歸 加以廉恥之不修 天下人無不病諸權利橫求”.

통사부터 노복까지 두루 나누어 주어 사신들도 시를 지어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덧붙여 있는²³⁾ 것이 특징이다.

유몽인은 사행을 통해 치부를 한 역관이라도 전혀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들도 조명하고 있다. <불효로 천벌을 받은 신용주 일가>(431화)는 역관 申應澍가 여러 차례 중국 사행에 참여하여 장사로 가업도 넉넉했지만, 사납고 악한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80세 시아비를 홀대하다 천둥 번개에 맞아죽고, 자신도 불효와 아내를 제대로 단속 못한 죄로 장형을 받다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유몽인은 신용주가 집안사람이긴 하지만 “하늘과 사람의 이치는 조금의 차이도 없으니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경계로 삼고자 한다며 수록 의도를 밝히고 있다.

반면 <역관 곽지원과 홍순언의 의로운 행동>(371화)은 역관 郭之元和 洪純彦의 선행을 그리고 있다. 이들은 중국 사행 때 빗 때문에 전답과 노비를 빼앗기고 유리결식할 처지에 놓이거나, 환란으로 가업은 물론 처자까지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인 중국인에게 각각 白銀 300냥과 金 500냥을 주어 곤경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몽인은 이들을 남들이 못하는 의기를 펼쳐 역관의 영웅일 뿐 아니라, 옛 사람들에서도 보기 드문 일로 위대하다고 극찬하기까지 한다.

실제 곽지원은 1560년 賀正使 吳祥을 따라 연경으로 향하다 여진족에게 포위를 당하자 두려워 문을 열려는 驛丞을 제지하고 片箭으로 적을 쏘아 포위망을 뚫었고, 塔山所의 숙소 주인인 蔣忠에게 백정 일을 그만두게 해 행실을 고친 것으로도 유명하다.²⁴⁾ 그리고 홍순언은 부모의 장

23) 허균, 『惺所覆瓿藁』 권24, 『說部』3, <譯官李和宗赴京時得螭背脊中有六大珠>, “和宗曰 此天賜也 豈可自專乎 悉分其段 自上通事至奴僕 俱均給之 兩公嘉歎 作詩以贊之”. 李華宗은 鄭崑壽의 『栢谷集』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자가 泰之로 1498년 식년시 역과에 2등 1위로 합격하고 관직이 2품에 이른 李和宗이 맞는 것 같다. 이화중은 李希輔가 『安分堂詩集』에 <題譯官李和宗詩卷>을, 李荇이 『容齋集』에 <書李和宗詩軸用邵奎韻>을 남길 정도로 시문에도 조예가 깊었던 역관이었다.

24) 한편, 유몽인은 1610년 동지사행을 떠나는 俞大禎에게 중국 사행에 참여하여 각

례를 치르기 위해 창녀가 된 처녀를 돈을 내어 구해준 결과, 뒤에 중국의 상서 石星의 寵姬가 된 그녀의 도움으로 ‘宗系辨誣’는 물론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원병을 얻을 수 있었던 전설적인 역관이다.²⁵⁾

치부의 주체가 단지 역관에만 머문 것이 아니다. <천인 신석산의 치부 내력>(364화)은 서울의 賤人인 申石山이 奉表使를 따라 빈손으로 연경에 갔다가 모래 속에서 빨처럼 생긴 물건을 얻어 중국 상인에게 팔았는데, 알고 보니 황후가 아들을 낳기 위해 지녀야 할 백만금의 가치를 지닌 뱀의 뱀이었다. 신석산은 십만 금으로 5년 동안 운반할 양의 비단을 사서 귀국한 뒤 제일의 갑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화포장의 횡재>(365화)는 가난한 火砲匠이 중국 사행에 참여했는데, 배가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자 水厄을 당할 자가 승선한 때문이라 하여 화포장만 섬에 남게 되었다. 화포장은 지혜로 이무기를 죽여 뱃속에서 엄청난 양의 照乘珠를 얻은 뒤 귀국 후 시장에 내다 팔아 수만금의 재산을 지닌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신석산과 화포장의 치부는 물욕과 관계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그들의 ‘가난’을 먼저 앞에 내세워 善業善果의 예시를 보여주었다면, <무사와 환혼석>(367화)은 같은 우연이라도 과한 물욕을 경계하는 예시가 되기도 한다. 한 노인이 마을 아이들이 알을 쪄낸 바람에 죽은 학의 새끼를 등지에 올려주어 며칠 뒤 새끼가 되살아나자 그 등지에서 푸른 돌을 얻어 간직해 두었다. 從事官으로 사행을 떠난 노인의 아들이

중 부정을 저질렀던 역관 광지원의 예를 들며 역관에게 농락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광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어우집』 권3, 「序」, <送冬至使俞景休大楨序>, “無若見賣郭舌人”.

- 25) 이익, 『星湖僊說』 권5, 「萬物文」, <邊箭>, “嘉靖庚申 吳祥赴燕 至閭陽驛 爲鎗所圍 驛丞欲開門降 我國譯官郭之元 激勸守城 用片箭射賊得解圍”; 허봉, 『朝天記』 하, 갑술년(1574) 9월 22일, “蔣忠者本以殺猪售肉爲業 郭之元曾赴京宿此家 因勸止之 忠即從其言而改行”; 『星湖僊說』 권9, 「人事門」, <洪純彦>, “後女爲尙書石星寵姬 及辨誣之行 純彦因此女有力 至於壬辰之變 天朝發兵再造 石星主之 亦此女有助云”.

연경 시장에서 그 돌을 내놓자 중국 상인이 천금을 주겠다고 잘 간직하
라 했는데, 아들은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 그 돌을 깨끗이 씻고 구관조
눈처럼 튀어나온 자국을 거친 돌로 문질러 없애버렸다. 돈을 가지고 돌
아온 중국 상인은 그 돌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還魂石이지만 눈을 빼버
려 신령한 정기가 빠졌으니 노리개로나 사용하겠다고 십 금만 주고 갔
다는 이야기이다. 명색이 사행의 중심인 종사관조차 치부에 가담한 사실
도 충격적이지만, 과한 물욕은 결국 실패를 가져오게 마련이라는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정인 박계금의 패가망신>(044화)은 아예 장사치의 의도적인
물욕이 권력욕과 결부되었을 때 초래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다루고 있다.
시정 장사치의 아들인 朴繼金은 東平館의 왜인에게서 수천금을 주고 야
광주를 산 뒤, 연경에 가서 絲緞과 교환하여 백배 이익을 얻고자 뇌물까
지 써서 사행에 참여했다. 요동의 懷遠館에 이르렀을 때 조금 희미해졌
던 야광주는 연경 시장에 이르러선 아예 빛을 잃고 말았다. 상인들이 구
워서 만든 가짜 진주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바람에 박계금은 수천금의
빛을 지고 말았다. 박계금은 귀국 후 집·밭·노비 등을 다 팔아도 빛을
못 갚자 관청의 아전들과 모의해 거짓 문서로 3품 종실의 녹봉을 받아
10년 만에 빛을 다 갚았지만 뒤에 탄로가 나서 옥사하고 말았다. 유몽인
은 재화를 중히 여기다보니 죽음조차 두려워 않는 계책이 생겨났고 마
침내 재앙을 입고 말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3.3. 학문과 문학

『어우야담』에는 유몽인이 사행을 통해 알게 된 조선과 중국의 학문
및 문학에 대한 논의도 잘 드러난다. 먼저 학문의 경우 <조맹부의 서체
가 유행하게 된 까닭>(250화)에서는 조선의 아이들이 입문서로 삼는 『
十九史略』과 『古文眞寶』가 중국에서는 정작 천시하여 버림받는 것인 데
다, 여러 차례 과거에서 장원한 權璉조차 읽은 책이 『少微通鑑』인 점을

들어 “숭상하는 것이 낮고 보잘 것 없는 까닭에 인재가 중국에 미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소미통감』은 송나라 학자 江贊가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바탕으로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로, 조선 초기부터 『통감』이라는 이름으로 초학의 학습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인재 배출의 차이를 초학 교재의 수준 차이로 살핀 것이다.

문학활동과 관련한 이야기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유몽인 자신의 문학에 대한 평가로는 “중국 문사들은 문장을 보는 감식안이 매우 뛰어나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중국에 알려진 유몽인의 시문>(171화)이 대표적이다.

예로부터 중국의 문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찮게 여겨 수백 년 동안 사행이 오가는 길가에 우리 시가 한 편도 벽에 걸린 적이 없었다. 현판에 새겨져 걸린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유몽인은 세 번째 사행길에 외교업무를 맡은 鴻臚寺의 우두머리인 李浣의 별장이 있는 永平府의 萬柳庄에 들러 16韻의 7언시 <題萬柳庄>을 지어 벽에 남긴 적이 있었다.²⁶⁾ 위의 인용문은 1610년 성절사로 중국을 다녀온 鄭文孚가 이완의 처남인 어사 韓應庚의 누이 한씨의 사적을 기록한 『節孝篇』을 건네주면서, 한응경이 유몽인이 지은 시를 현판에 새겨 벽에 건 사실을 알려주자 뿌듯해하는 대목이다. 그들의 호의에 감격한 유몽인은 여러 사대부들에게 『절효편』의 대강을 적은 편지를 보내 그녀를 기리는 시를 지어달라고 부탁한 뒤, 다음 사행을 떠나는 이에게 대신 전해주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보답하였다. 뒤이어 유몽인은 자신이 杏山에 머물 때 벽에 쓴 <方言嘆>도 뒤에 조선 사신이 도착했을 때는 시를 적은 글자에 분을 바르고 紗籠으로 감싸두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에 유몽인은 “그들의 문자를 보는 눈이 또한 우리나라 문사들과 다르다.”며

26) 『어우집』 권2, 시, 『朝天錄』, <題萬柳莊>.

자신의 문학적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낸다.²⁷⁾

자신 외에 중국인에게 평가받은 조선 문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중국에 알려진 우리나라의 시문>(172화)에서는 1495년 사행에 서장관으로 참여한 李胄가 通州의 門樓에 올라 지은 시를 중국인들이 현판으로 내걸어 놓으면서 “전생에 중국에서 태어난 몸으로 외국인이 아니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이야기이다. 『續東文選』에도 수록된 이주의 <通州>는 신흠이 金淨의 시를 “당나라 사람의 시집 속에 두어도 분간하지 못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에 버금가는 시로 평가했고, 허균도 王維·孟浩然的 시에 근접하고 있다고 칭찬한 적이 있다.²⁸⁾ 또 <중국 중의 문장 감식안>(201화)은 중국 사찰을 구경하던 鄭士龍이 詩僧을 만나 읊시 몇 수를 보여 주었지만 중이 인정하지 않자 김시습의 읊시 4수를 보여주었다. 그 중은 “이 시는 物外에서 고상하게 노니는 사람의 작품으로 그대가 지을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평가해버린다. 문장가로 자부하던 정사룡보다 오히려 김시습의 시문이 월등히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이야기이다.²⁹⁾

27) 『어우집 후집』 권2, 시, 『朝天錄』에도 <題萬柳庄>과 내용이 다른 칠언율시 <次萬柳庄韻>이 전한다. 이는 유몽인이 만류장에 걸려 있던 중국인들의 시에 차운한 것으로, 벽에 걸린 것은 『어우야담』에도 전문이 수록된 <題萬柳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문부·『절효편』 등에 대해서는 『어우집』 권5, 『書』, <呈朝中諸大夫求節孝編詩書>를 참조.

28) 서거정, 『續東文選』 권6, 오언율시, <通州>; 신흠, 『象村先生集』 권60, 『晴窓軟談下』, “沖菴詩所傳誦人口者固多…置之唐人集中 辨之不易 忘軒詩曰 通州天下勝…亦可謂亞於沖菴矣.”; 허균, 『惺所覆瓿藁』 권25, 說部 4, 『惺叟詩話』, <李胄詩沈着有盛唐風格>, “李忘軒胄詩最沈著 有盛唐風格…其通州詩曰…亦咄咄逼王孟也”.

29) 『어우야담』에서 정사룡은 <이사균의 민첩한 시재>(183화)를 비롯하여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14화나 될 정도로 많이 등장한다. 정사룡이 글을 지으면 반드시 남에게 보여주되, 특히 퇴계의 지적은 반드시 수용하였다는 <황여헌과 정사룡의 문장>(185화)·<문장가들이 결점을 수용하는 자세>(407화)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정사룡의 『湖陰集』에 수록된 비문을 자신이 대신 지어 주었다는 어숙권의 말을 유몽인이 항상 믿었다는 내용을 담은 <정호음과 어숙권의 박식>

그리고 중국인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중국 사행에서 지은 시문에 대한 소개와 자신의 평가도 적어두고 있다. 곧 <삼당파 시인>(222화)은 崔慶昌이 중국 사행을 갔을 때 명나라 장군 楊照가 전사하자 지은 輓歌를 싣고 있다. 또 <중국에서 구해 온 대책문>(549화)은 역관 林芑의 아버지가 연경에서 명나라 정치인 何忠이 지은 對策文을 얻어왔는데, 정작 중국에 하층의 대책문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문체마저 우리나라와 같아 중국인이 지은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문사들 외에 기생이나 일반 여성들의 우리나라 문인에 대한 평가도 드러난다. <중국 미녀에게 준 서장관의 시>(173화)에는 총 3명의 우리나라 인물이 등장한다. 먼저 고려시대에 서장관이 된 李穀이 중국에 갈 때 청루 기생들이 물을 뿌리자 오히려 7언절구 1수로 대응했는데, 귀로에 들렸을 때는 기생들이 술과 안주로 그를 맞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조선시대에 서장관이 된 趙徽가 연경에서 미인을 만나 흰 부채에 칠언절구를 써 준 것을 인연으로 그녀의 집에 안내되어 대접을 융숭히 받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름 없는 우리의 문사가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중국의 미녀에게 5언시 2구를 바치자 그녀가 바로 2구로 화답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문학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에만 연연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신들의 시에 대한 비판도 보인다. <황화집의 수창시>(176화)가 대표적이다. 유몽인은 『皇華集』이 중국 사신들의 시를 감히 가려 뽑거나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여 간행한 까닭에 “길이 세상에 전해질 책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한다. 나아가 1606년 遼東都司 延慰使가 되어 접대했던 명나라 사신 朱之蕃의 시에 대해서도 뚜렷한 뜻과 생각이 없어 도리어 1609년 선조의 제사를 위해 방문

함>(231화)처럼 대체로 부정적인 비판이 더 많은 편이다. 이는 훌륭한 문장이 豪富를 담했던 醜名을 덮었다는 그의 卒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조수정실록』 권4, 선조 3년(1570) 4월 1일, “鄭士龍卒…終始以文華 勝醜名 亦爲所掩云”.

한 명 사신 熊化의 가냘팜만도 못하다는 혹평을 내리기도 한다.³⁰⁾ 熊化는 1608년 2월 1일 선조가 승하하자 중국 황제가 이듬해 선조에게 제사하고 부의 및 ‘昭敬’이란 시호를 내리기 위해 파견한 사신이다. 문사로서의 몸가짐을 잃지 않아 『황화집』에 51편의 시와 11편의 문 등 모두 62편의 작품을 남기는 등 당시 조선 문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 인물이다.³¹⁾

그리고, 사행에 참여한 이들의 독서벽과 聰明強記를 찬양하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희보의 독서벽>(203화)은 만권의 책을 읽은 독서광 李希輔가 원접사 李荇의 종사관으로 명나라 사신을 벽제에서 전송하였는데, 명나라 사신이 읊은 시구를 정사룡과 소세양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시경』에서 유래한 용사임을 밝혀 그들이 독서를 게을리한 것을 비웃었다는 이야기이다. <김계휘의 총명강기>(243화)는 중국 사행을 떠난 金繼輝가 通州에서 『十九全史』 600권을 팔고 있는 사람을 만나 한 번 읽어보고 그 내용을 다 기억한 뒤, 시장의 異書들을 사고 싶다 공언하였다. 그후 모인 책을 하룻밤 사이에 읽은 후 값이 비싸 살 수 없다고 속여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이다. <이덕형의 총명강기>(244화)는 제독 李如松의 접반사가 된 李德馨이 제독의 부하가 몰래 보여준 뒤 급히 빼앗아 간 수백 언의 비밀문서를 기억하여 행재소에 아뢰었는데, 뒤에 문서와 대조하니 한 글자도 틀림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남성들의 독서벽과 총명강기를 강조한 앞의 이야기와 달리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유몽인의 누이 홍천민 부인의 박학다식>(261화)도 있다. 유몽인의 누이이자 洪天民의 부인인 홍양유씨는 經史는 물론

30) 朱之蕃은 사행을 통해 조선의 문사들과 詩·書·畫 전 분야에 걸쳐 활발히 교류하여 그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朱太史 전설’로 일컬어질 정도로 조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서는 신영주, 『朱之蕃의 조선 사행과 문예교류에 관한 일고』, 『한문학보』 16호, 우리한문학회, 2007.; 하영휘, 『주지번의 조선사행과 주태사 전설』, 『조선시대사학보』 81집, 조선시대사학회, 2017을 참조.

31) 노경희, 『17세기 문관출신 明使 接伴과 한중 문화교류』, 『한국한문학연구』 42호, 한국한문학회, 2008, 245쪽.

남편이 죽은 후 매월 삭망에 제문을 지을 정도로³²⁾ 문장에도 뛰어난 인물이다. 광해군 초년에 사신으로 熊化가 왔을 때³³⁾ 종사관이 우리나라에 화재가 나지 않을까 염려했다는 사실을 듣고 아무도 이해를 못했지만, 부인만은 남송 魏慶之가 편찬한 시화집인 『詩人玉屑』에 등장하는 ‘能火’의 뜻을 취한 것임을 알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4. 서화와 생활문화

유몽인은 『어우야담』을 통해 중국 사행을 다녀 온 경험을 토대로 서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먼저 書體와 관련된 것으로 <조맹부의 서체가 유행하게 된 까닭>(250화)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趙孟頫의 글씨를 정작 중국에선 찾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곧 고려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조맹부와 친해 귀국할 때도 그의 글씨를 많이 얻어와 퍼뜨린 바람에 모두가 조맹부의 서체를 祖宗으로 받들어 정작 “수척하면서도 힘이 있고 맑으면서도 간결한” 위나라 鍾繇와 진나라 王羲之의 서법을 익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황기호가 초서 쓰는 법>(298화)에서는 黃耆老의 초서가 중국에서조차 수백 년 동안 견줄 만한 이가 없음을 칭송하고 있다. 반면 “필력은 남음이 있지만 옛 것이 아닌 것을 만들어 세상을 속인다.”며 황기로

32) 조연숙, 『한국고전여성사』, 국학자료원, 2011, 33쪽. 그녀의 식견은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 김씨를 추존하여 成陵으로 봉하고 대비로 주청하는 데 자문을 하거나, 선조 임금의 성균관 유생에게 내린 시험의 글씨 ‘鄭衆謝拜軍司馬’에서 정확히 선비 鄭衆과 환관 鄭衆을 구별함으로써 유몽인이 “온 조정의 사대부와 재상이 모두 한나라에 師丹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며 극찬한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33) 『선조수정실록』, 선조41년(1608)년 2월 1일, “越明年 帝遣行人司行人熊化等 賜諡曰昭敬”. 조경남의 『亂中雜錄』 권4, 『己酉篇』에도 광해군 2년(1609) 3월에 중국 황제가 行人司行人 熊化를 보내어 祭와 諡, 賻를 내리고, 태감 劉用을 보내어 왕을 봉하는 조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난다. “己酉 萬曆三十七年光海君二年春三月 帝遣行人司行人熊化 賜祭諡及賻 又遣太監劉用賜封王詔”.

를 비판한 成守琛의 글씨에 대해서는 원나라 문인 鮮于樞의 글씨를 근본으로 조맹부의 松雪體를 섞은 탓에 중국인들이 “山僧 野客의 글씨”라 평가한 것처럼 그에 비할 바가 못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황기로는 金絨·楊士彦 등과 함께 “귀신도 놀라 물러나게 할” 정도로 초서를 잘 써 ‘동방의 草聖’으로 칭송받는 인물이다.³⁴⁾ 황기रो에 대한 이야기는 <황기로의 「후적벽부」 글씨>(299화)·<황기로의 초서>(300화)에서도 다시 이어지고 있어 그에 대한 유몽인의 지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에 대한 교류양상도 그려낸다. <중국 사신 김식의 감식안>(303화)에서는 조선 성종 때 명나라 英宗의 죽음을 알리러 온 중국 사신 金湜이³⁵⁾ 우리나라의 역대 대나무 그림을 청해 보고 한결같이 ‘삼대’나 ‘갈대’를 그린 것으로 평가하면서 진짜 대나무 그림 보기를 청한 이야기다. 安堅을 시켜 그린 그림조차 ‘갈대’로 평가받은 성종은 성근 앞만 남은 대나무 화분을 가져오게 하여 석양 무렵에 안견에게 그리게 한 뒤 김식에게 다시 보여 비로소 진짜 대나무 그림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중국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도 드러낸다. <정원의 사치>(445화)는 수석을 좋아하여 예쁘게 꾸민 정원으로 사대부들에게 부러움을 받던 선비 尹希宏을 본 뒤, 중국 사행 때 만난 부호와 귀인들의 정원이 훨씬 웅대했던 사실을 들어 윤희광이 자질구레한 힘을 써서 즐거워하니 크게 비웃을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절부가 없는 湖廣지방>(468화)은 유몽인이 1609년 聖節使로 중국의 연경에 갔을 때 謝恩使로 파견되어 와 있던 尹昉을 만나 전해들은 것이다. 중국의 호남과 광둥 지방의

34) 허목, 『記言 別集』 권10, 「跋」, <朗善君書帖跋>, “黃耆老草書大字 能令鬼神辟易”.; 정두경, 『東溟集』 권7, 「七言律詩」, <梅鶴亭并序>, “處士黃公 我東草聖”.

35) 김식은 성종 때가 아니라 세종 10년(1464) 太僕寺丞의 벼슬로 조선에 사신으로 와서 5월 20일에 素竹병풍을 그리고 시를 지어 원접사 朴元亨에게 바친 것으로 나타난다. 『세조실록』 권33, 세조 10년(1464), 5월 20일, “正使金湜畫素竹屏風 并製詩書其上 贈朴元亨”.

해안가는 瘴氣가 심해 처음 시집간 부녀자의 남편은 반드시 나병에 걸려 죽는 바람에 일부러 이 지역 부녀자들은 다른 지방 남자에게 먼저 시집가 전염을 시킨 후 다시 돌아와 제 지방 남자와 결혼하므로 이 지방에는 節婦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유몽인은 이를 다소 황당한 이야기라 믿지 않았는데, 정작 福建 지방 출신인 중국인 韓序班이 맞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일본 사행 관련 이야기

앞서 밝혔듯이 『어우야담』은 일본 사행, 곧 통신사 및 일본국왕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수록하고 있다. 물론 이들 이야기는 중국 사행과 달리 유몽인이 직접 일본 사행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해동제국기』와 같은 통신사 사행록과 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견문 등 간접적인 체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 사행 관련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 적고 내용도 다양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일본 사행과 관련한 가장 이른 시기의 이야기는 <신숙주와 청의동자>(139화)이다. 신숙주가 젊은 시절 알성시를 보러 성균관으로 향하던 중 입술이 하늘과 땅에 붙은 괴물을 만났지만, 두려워 않고 입 안으로 들어간 덕분에 청의동자를 만나 평생 그와 함께 한 기이한 인연을 다루고 있다. 신숙주가 일본 江戸막부 足利義勝의 장군직 계승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된 계해통신사(1443)에 종사관으로 참여하여 무사히 바닷길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도 청의동자가 항상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몽인은 청의동자를 李林甫와 安祿山の 곁에 있었던 神童이나 神兵의 부류일 것으로 파악했다.

임진왜란 직전 파견되었던 경인통신사(1590)와 관련한 이야기도 전한다. <조현의 의기와 선견지명>(018화)은 이듬해인 1591년 일본에서 사

신을 보내자 趙憲이 경인통신사행 때 豐臣秀吉이 보인 행태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사신을 죽인 후 중국 조정에 알리자고 상소했지만, 당시 조정은 그의 견해를 미친 것으로 여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豐臣秀吉의 행태란 통신사를 50일이 지나서야 만났고, 사신과 술을 나눈 후 술잔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공식 석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식을 무릎에 앉히고 장난을 한 것을 말한다.³⁶⁾ 조현은 豐臣秀吉이 통신사와 술을 나눈 후 술잔을 깨뜨린 것은 맹약을 깨졌다는 뜻을 보인 것이고, 아이를 안고 장난 친 것은 조선을 어린아이처럼 여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번 마신 술잔을 깨뜨리는 것은 일찍이 갑자통신사(1624)에 부사로 참여한 강홍중이 지적했듯, 존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일본의 풍속이다. 통신사가 오래 머문 곳에는 항상 담 아래 버린 그릇이 산 같이 쌓이곤 했으니³⁷⁾ 이를 약속의 파기로 본 것은 오해라 할 수 있다.

또, <정현의 부용당 시>(207화)는 임진왜란 때 왜적이 해주의 부용당에 걸린 詩板들을 부수되 鄭磻과 김성일의 시만 남겨 두었는데, 특히 시에 능하지 않은 김성일의 시를 남겨둔 까닭을 통신사행 때 그가 보인 강직한 성품을 일본 사람들이 존경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김성일은 對馬島主가 가마를 탄 채 뜰을 지나 사신을 만나자 무례하다며 숙소로 돌아와 버렸다. 게다가 일본이 회답국서에서 明에 대한 침공과 조선을 일본에 入朝케 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자 교린의 예의에 어긋난다며 국서와 예물을 거부한 일로 일본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³⁸⁾

36) 당시 통신사가 최종 숙박지인 京都의 大德寺에 도착한 것은 7월 21일이었고, 奥羽平定을 떠난 豐臣秀吉이 京都로 돌아온 것은 9월 1일이었으며, 일찍이 豐臣秀吉이 大名들에게 천황과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서약 받았던 장소인 聚樂第에서 통신사를 접견한 것은 11월 7일이었다. 三宅英利 저·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90쪽.

37) 강홍중, 『동사록』, 1625년 3월 2일, “供進訖 輒進果床茶酒 所用器皿 皆是唐畫器及漆木器 而一用便棄 不復更進 蓋國俗待尊客之例也 是以久留之處 則器皿之委棄牆底者”.

38) 김성일, 『海槎錄』 권5, 『行狀』, “義智後至 乘輜歷堦而陞 公惡其無禮 不欲與之爲

<호걸승 유정>(021화)은 임진왜란 후 강화를 위해 일본에 파견되었던 탐적사(1604) 惟政이 德川家康이 준 풀숨 2만 근을 사양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對馬島主 橋智正에게 모두 주고 귀국하였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유몽인은 유정이 가선대부로 있을 때 묘향산 보현사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나타낸다. <휴정의 시>(189화)에서는 色僧으로 묘사된 스승 휴정과는 달리 금강산에서 본 『사명집』을 떠올리며 “(사명당의) 문장은 자못 청절해 취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본국왕사와 관련한 이야기로는 <어득강의 민첩한 말숨씨>(404화)가 있다. 일본 사신 藤安吉이 오자 성종이 그의 이름을 두고 “등(背)에서는 안길 수가 없는데 어찌 ‘등안길’이란 말이 있는가?”라며 언어유희를 펼쳤다. 이에 어득강이 “배(腹)에 업힐 수가 없는 데도 오히려 ‘褒魚皮’라는 이름도 있다.”며 재치 있게 응답했다는 내용이다. 유몽인은 이를 두고 참으로 하늘이 만든 對句로 그 골계의 민첩함을 엿볼 수 있다며 칭찬한다. 藤安吉은 筑前州 博多 출신으로 그의 아버가 조선에 도항했다가 동편관에서 죽자 김해에 아비를 묻고는 1461년 6월 2일 세조에게 宿衛를 청해 護軍을 제수받고 이듬해 向化倭人이 된 인물이다.³⁹⁾

이밖에 <유구국에 왕의 칭호가 없는 이유>(391화)와 <살인을 숭상하는 일본 풍속>(396화)도 있다. 전자는 琉球國은 바다 멀리 있는 데다 파도까지 심해 천자의 명을 받아 왕으로 책봉하는 책임을 맡은 詔使가 제대로 이르지 못해 ‘왕’이란 칭호 대신 ‘세자’라 칭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禮 請共避出…遂出堺濱留半月而書契始至 辭甚悖慢 至以殿下爲閣下 以所送禮幣爲方物領納 又有一超直入大明國 貴國先驅入朝等語 公見之大駭據 義却之”. 경인통신사에 대해서는 한태문, 『경인통신사(1590)의 문화사절로서의 성격』, 『동양한문학연구』 36집, 동양한문학회, 2013을 참조.

39) 『세조실록』에 의하면 藤安吉은 세조 7년(1461) 6월 2일 유구국왕·九州都元帥·대마도주의 사신들과 함께 思政殿에서 세조를 알현한 뒤 이듬해 向化倭人이 되었으며, 동생 藤茂村, 아들, 사위 信盈 등 일족이 모두 受職倭人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문중, 『조선전기 향화·수직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2001, 120-121쪽을 참조.

는 유몽인이 말미에 적어둔 것처럼 유구국에 갔던 詔使의 일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후자는 자신이 아끼는 여종을 힘센 종에게 빼앗긴 왜장 平調信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평조신은 검객을 뽑아 그를 죽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고민하던 중, 그동안 무시당하던 다른 종이 나서서 그와 싸워 이겨 문제를 해결한다. 정유재란 때 포로로 잡혀와 있던 강향이 상처를 입고 병석에 누운 종에게 병문안을 하자, 그 종은 “죽음을 고상히 여기는 일본을 떠나 詩書를 배워 죽을 때까지 창칼을 휘두르지 않는” 조선에 살고 싶다고 하소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필기문학의 전통 속에서 야담 양식을 창출한 최초의 야담집으로 평가받는⁴⁰⁾ 『어우야담』 속 사행 관련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우야담』 속 사행 관련 이야기의 형성배경을 살폈다. 유몽인의 사행체험은 직접적인 참여와 간접적인 독서경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직접적인 참여는 중국 사행과 중국에서 온 사신을 접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중국 사행은 33세(1591), 38세(1596), 51세(1609) 등 총 3차례 이루어졌는데, 質正官·書狀官·正使 등 사행에 따라 맡은 직분은 달랐지만 사행 체험과 견문을 담은 『星槎錄』과 『朝天錄』을 남겼다. 중국 사신의 접반은 35세(1593)와 48세(1606)에 각각 問安使·遼東都司 延慰使로 참여하여 이루어졌고, 『西僊錄』을 남겼다. 한편 일본 사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숙주의 『해동제국기』를 비롯한 사행록 및 문집 등을 통한 간접적인 독서경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0) 신익철, 『『어우야담』의 서사방식과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 『정신문화연구』 33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8쪽.

둘째, 중국 사행 관련 이야기는 크게 ‘점복과 신앙’, ‘致富와 무역’, ‘학문과 문학’, ‘서화와 생활문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점복과 신앙’ 관련 이야기는 관상 및 죽음과 관련한 점복이 많고, 사행을 통해 점복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선비의 불교 배척을 비판하고 천주교의 교리에 대해 부정적인 작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치부와 무역’ 관련 이야기는 사행원의 치부와 무역이 개인의 물욕 여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물욕이 권력욕과 결부되면 그 결과가 비극적임을 보여준다. ‘학문과 문학’ 관련 이야기는 중국에서 버림받는 책들을 학습교재로 사용한 탓에 인제가 중국에 미칠 수 없다는 평가, 자신을 비롯한 조선 문인들의 시문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 및 중국 사신들의 시에 대한 작가의 평가, 사행원의 독서벽과 총명강기 등을 다루었다. ‘서화와 생활문화’ 관련 이야기는 조맹부의 서체, 황기로의 초서, 중국 사신 김식의 그림 감식안 등과 중국의 정원, 절부가 없는 湖廣지방의 풍속 등 생활문화를 다루고 있다.

셋째, 일본 사행 관련 이야기는 중국 사행에 비해 수도 적고 내용도 다양하지 않지만, 계해통신사(1443) 신숙주, 경인통신사(1590) 김성일, 탐적사(1604) 유정과 관련된 내용과 일본국왕사의 이름에 대한 언어유희, 왕의 칭호가 없는 유구국, 살인을 숭상하는 일본 풍속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어우야담』은 첫 야담집임에도 불구하고 사행 관련 이야기를 많이 수록하고 있었다. 이는 이후 발간된 각종 야담집에도 사행 관련 이야기가 수록되었을 개연성이 있기에 앞으로 야담연구에서 ‘사행담(使行譚)’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출현을 기대하게 한다.

참고문헌

- 강홍중, 『東槎錄』
김성일, 『海槎錄』
김지남, 『通文館志』
유몽인, 『於于野談』
유몽인, 『於于集』
이 익, 『星湖僊說』
이공익, 『燃藜室記述』
이덕무, 『靑莊館全書』
이 행, 『容齋集』
이희보, 『安分堂詩集』
장 유, 『谿谷先生集』
허 군, 『惺所覆瓿藁』
허 봉, 『朝天記』
- 김진선, 「『어우야담』 평결에 나타난 유몽인의 현실인식 연구」, 『高鳳論集』 42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2008, 11~32쪽.
-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조선어문학회, 1931.
- 노경희, 「17세기 문관출신 明使 接伴과 한중 문화교류」, 『한국한문학연구』 42호, 한국한문학회, 2008, 223~254쪽.
- 三宅英利 저·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 소재영·김태준 편, 『여행과 체험의 문학』,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손찬식, 「북창 정립 전승 연구」, 『국어교육』 63권, 한국어교육학회, 1988, 41~66쪽.
- 신영주, 「朱之蕃의 조선 사행과 문예교류에 관한 일고」, 『한문학보』 16호, 우리한문학회, 2007, 37~63쪽.

- 신익철, 「『어우야담』의 서사방식과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 『정신문화연구』 33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7~34쪽.
- 이헌홍 외, 『한국고전문학 강의』, 박이정, 2014.
- 조연숙, 『한국고전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 하영휘, 「주지번의 조선사행과 주태사 전설」, 『조선시대사학보』 81집, 조선시대사학회, 2017, 207~233쪽.
- 한문중, 『조선전기 향화·수직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2001.
- 한태문, 「경인통신사(1590)의 문화사절로서의 성격」, 『동양한문학연구』 36집, 동양한문학회, 2013, 307~334쪽.

<Abstract>

A study on the story related to an envoy's journey reflected in the *Eouyadam*

Han, Tai-Moo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story related to an envoy's journey reflected in the Yu Mong-In's *Eouyadam* the first unofficial historical storybooks. The story of an envoy's journey in *Eouyadam* was made through the direct participation of the envoy's journey and indirect reading experience. Direct participation was made in the course of an envoy's journey to China and the reception of Chinese envoys. The indirect experience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reading experience of a record of envoy's journey or Anthology left behind by the envoy who went to China and Japan.

The stories related to the envoy's journey to China are largely divided into "divination and faith," "making money and trade," "study and literature" and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and Living Culture." The story of "divination and faith" contained many fortunes related to physiognomy and death, exchanges of divination through envoy's journey, and criticism of the classical scholar's perception of Buddhism and the Catholic doctrine.

The story of "making money and trade" shows that the making money and trade of a member of the envoy brings about the results

*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happiness and unhappiness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materialistic and especially when combined with the desire for power, the result is tragic. The stories related to “study and literature” dealt with the decline in academic ability caused by the choice of inappropriate learning materials, the Chinese assessment of the Choseon’s poetry and the Yu Mong-In’s assessment of the Chinese envoys’ poetry. The stories related to “The Painting and calligraphic works and Living Culture” dealt with the life culture, including the handwriting of the Cho Maeng-bu, Cursive characters of the Hwang Gi-Ro, the painting connoisseur of the Chinese envoy, and the Chinese garden and customs.

The story of envoy’s journey to Japan contents about Gyehae-Tongshinsa(1443) Shin Sook-ju, Gyeongin-Tongshinsa(1590) Kim Seong-il, Tamjeoksa(1604) Yu-Jeong. It also the contents of a speech play on the name of a Japanese envoy, Ryukyu without the title of the king, and the Japanese custom of revering murder.

Like this, *Eouyadam* contains many stories about the envoy’s journey, even though it is its first unofficial historical storybooks, which makes us expect a new type of suggestion in the story of envoy’s journey in research.

Key Words : *Eouyadam*, Yu mong-in, envoy’s journey, a record of envoy’s journey, the story of envoy’s journey

■ 논문접수 : 2020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20년 8월 17일

■ 게재확정 : 2020년 8월 24일